

● ● 문화현상읽기 연극

연극 교육과 지역 사회 문화 수급의 함수 관계

이 화 원 | 연극평론가 · 상명대공연학부교수

광복하고지루했던여름의열기가완연히가시고가
을이차분히무르익어간다. 우리나라를포함하여세계
곳곳의수도에서는한해동안연극계를결산하고전시
하는성격의연극축제들이한창이다. 대학로에서도시
울국제연극제의공연들이곳곳에서올라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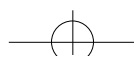
지역사회주민삶에윤기더하는연극되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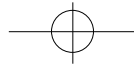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몇 나라의 수도에서 매해
개최되는 공식적 연극전람회 격인 연극제의 경우, 일
반대중들과축제적성격으로교감하고교류하는모습
을찾아보기는힘들다. 운동경기나텔레비전에중독된
대중들틈에, 연극을선호하는특정관객들과자국및
타국의 연극 관련 인력들이 그러한 성격의 연극제의
주고객인 셈이다. 지역 축제의 성격으로 일반 대중의
삶 속에서 향유되고 기능하는 행사와는 거리를 가지
게된다. 수도권을중심으로자국연극의최고수준을
가늠해 보는 연극제를 계기로 연극 예술의 한 단면을
목도할수있다면, 지역사회곳곳에서일반인들의삶
에원기와향기를제공할수있는연극의존재는분명
연극이담당할수있는중요한또하나의단면일것이

다. 그러한가능성을곳곳에서늘어나고있는지역연
극축제들을통하여기대해본바있다.¹⁾ 그런한편최
근 우리나라 연극계의 한 가지현상으로 읽히는 연극
관련학과의폭증및중등교육과정내연극관련교과목
개설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사회와 일반인들의 삶 속
에서기능하는연극의몫을생각해보고자한다.

지난 2~3년간 전국 대학의 연극관련학과의 수는
무려3배가량늘어나서근 50개에이른다. 영화및영
상까지범위를넓히면무려 80여개의학과를꿈을 수
있다. 신설연극학과에서는아직졸업생들이배출되지
않은실정이지만, 연극계일각에서는과연이많은연
극학과로부터배출될졸업생들이어떻게빈곤한우리
연극 현장에서 소화가 될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수도권을중심으로편중되어있는우리나라연극계의
지형도및인력의현황에비추어볼때전국각지에분
포되어있는연극관련학과들이증폭되어갈졸업생의
숫자들을수용하기에는역부족이다. 그러나그런만큼
전국각지의 연극및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수급해
줄 만한 제도적 장치와 인력이 빈곤했었음을 절실히
깨닫게된다. 여기에서전국각지역에있는연극관련
학과가담당해야할주요기능을가늠해볼수있다.

1) 『문화예술』 2001년 9월호와 10월호에나뉘어게재된 ‘연극계의전반적위축과연극축제의양적팽창’ 과 ‘축제의연극성, 연극의축제성’ 참조.





바로 학과가 소속되어 있는 그 지역의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재학생 및 졸업생 인력을 통하여 문화적수급을 담당함으로써 지역 사회 주민들의 삶에 문화적 차원을 개척해 나갈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 각 지역에서는 문화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에 윤기를 더할 수 있는 문화 관련 행사의 기획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최근 지역 연극 축제들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이미 지켜본 바 있다. 각 지역의 연극 관련 학과가 탄탄하게 자리잡고 효율적 연극 인력을 배출하며 지역 정부와의 효과적인 소통과 공조를 이루므로써,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연극 및 문화 관련 기획과 실천이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연극이 전인교육의 바탕으로 거듭나게 마련되어

한편 근래에 연극 영화 교과목이 중·고교 교과과정에서 개설될 수 있는 기초적인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연극 영화 교과목을 실제 개설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연극을 통한 교육적 목적을 충분히 확보할 만한 토대로서, 신뢰할 만한 교과서의 집필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고 능력 있는 교원들을 효율적으로 수급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위하여 현재 한국연극교육학회 및 한국대학연극학과 교수협의회, 그리고 연극협회가 공조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연극 영화 교과목이 전국 각 중·고등학교에서 음악이나 미술, 무용 등과 나란히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고 효과적으로지도된다면, 기존 교과과정 내 어떤 교과목이 당

당하지 못했던 전인교육, 인성교육 및 사회성의 교육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연극의 한 분야인 연극 놀이나 교육 연극은 청소년의 심리적 치료의 한 수단으로도 이미 활용되고 있는 바 성장과 입시의 부담을 안고 일탈의 유혹에 고통받는 전국 각지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중등교육과정의 무너져가는 공교육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교육적 효과 및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은 과목으로서 우리의 청소년 교육 현장에 큰 기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연극을 중·고등학교 시절에 접하게 되어 삶에 대한 그 직접적인 기능성을 전국의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확인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연극은 현재 수도권 중심의 특수층만의 전유물이라는 위치를 탈피하여, 향후 전국 각지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정화해주는 맑은 샘물로서 보편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연극 문화에 대해 수요를 창출하고 수급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동시대인들의 삶을 원활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사명감과 같다. 그것은 성직자의 그것과도 같을 수 있다. 연극이란 매일의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하고 내일의 삶에 대한 원기를 제공할 수 있는 본질의 예술이기 때문이다. 연극의 신성성 및 종교성은 연극의 발생기에서부터 이미 확인된 바이다. 전국 각지에서 확산되고 있는 대학의 연극 관련 학과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연극 교육이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연극인 양성, 조화롭고 지혜로운 인간교육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또한 전국 각지의 동시대인들의 삶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효율적 연극 창조 작업으로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나라 각 지역 사회에서의 삶과 문화는 한 차원 승화되고 가치를 증폭할 수 있을 것이다.

